

「하생기우전」의 문제 해결 방식과 작가의식*

안창수**

- I. 머리말
- II. 문제의 해결방식
- III. 작가의식과의 관계
- IV. 문학사적 의의
- V. 맺음말

【요약】

「하생기우전」에 나타난 문제해결방식을 찾아보고 이것을 작가의 의식과 연결시켜 살펴본 다음 작품의 문학사적 의의까지 찾아보려 했다. 「하생기우전」은 사회에 불만이 있을 때 오히려 관심의 방향을 자신의 내부로 돌려 자기성찰에 힘써야 하고, 인간관계에서도 대립과 갈등보다 이해하고 포용하려 해야 하며, 사회적인 문제를 다룰 때에도 직접적인 방법보다는 간접적이며 우회적인 방법을 사용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하생기우전」의 문제해결방식은 작가인 신광한이 기묘사회에 연루되어 긴 은거의 시기를 거치며 형성되었던 삶의 자세와 의식구조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었다. 문학사적으로도 「하생기우전」은

* 이 논문은 부산대학교 자유과제 학술연구비(2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부산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16세기 사림파에 의해 주도되고 있던 문학적 현상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문학이 이념이 실현되어지는 장(場)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 것인데, 그 결과 「하생기우전」은 이념이 지향하는 바의 이상적인 삶의 모습을 작품으로 실현하고 있으며, 관념의 세계에서 원망을 충족시키는 기능을 담당하기도 했다.

I. 머리말

『기재기이』에 실려 있는 네 작품 중 하나인 「하생기우전」은 1553년에 출간됨으로써 우리나라 초기소설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작품의 하나로 주목을 받아왔다. 특히 『금오신화』의 「만복사저포기」와는 명혼(冥魂)소설로 불려질 수 있는 동질성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비교의 대상이 되어왔다.¹⁾

「만복사저포기」와의 비교는 「하생기우전」이 초기 소설사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의의를 선명하게 제시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비중 있게 다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비교연구는 「만복사저포기」라는 거울에 비춰보게 함으로써 「하생기우전」이 지니고 있는 작품 자체의 문학적 특질을 간과하거나 왜곡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지니게 된다.²⁾ 이런 점에서 선입견 없이 「하생기우전」의 작품 내

-
- 1) 김종철, 서사문학사에서 본 초기소설의 성립 문제(『고소설연구논총』, 다국 이수봉 선생 화갑기념논총, 1988)
 소재영, 하생기우전(『국문학논고』, 숭실대학교출판부, 1989.9)
 유기옥, 하생기우전의 구조적 특성과 의미(『국어국문학』101호, 국어국문학회, 1989.5)
 박일용, 명혼소설의 낭만적 형식과 그 소설사적 의미(『조선시대의 애정소설』, 집문당, 1993.8)
 이월영, 「만복사저포기」와 「하생기우전」의 비교연구(『국어국문학』120호, 국어국문학회, 1997.12)
- 2) 특히 비교연구가 두 작품의 문학적 가치평가의 문제와 연결되는 것을 경

적 질서를 찾아보려 했던 일련의 시도³⁾ 「하생기우전」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제공해 줄 수 있었다.

이 글은 작가가 작품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주목함으로써 작품의 내적질서를 찾아보고, 이것을 작가의식과 연결시켜 해명해 보기 위해 시도되고 있다. 소설의 인물들은 문제적 인간이고 소설은 인물들이 문제에 부딪혀서 해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그리는 양식이다. 당연히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작품마다 다르게 나타나게 되며 이것으로 해서 한 작품은 다른 작품과 변별되게 되므로, 문제의 해결방식을 추적해 보는 것은 「하생기우전」의 작품 내적 질서를 찾아보는 것이 된다.

작품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삶의 문제에 대한 작가의 의식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신광한은 “덕기(德器)가 팽박(宏博)하고 학문에 연원(淵源)이 있어 일대의 당당한 사유(師儒)요 군료(群僚)의 올바른 의표(儀表)”라고⁴⁾ 평가받았던 인물이고, 10년 동

계해야 한다. 이 경우 독자들은 선입견을 갖고 작품에 접근하게 되어 작품의 본래적 가치를 볼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 뿐만 아니라 가치평가는 종종 현재 우리의 가치기준에 의해서 재단될 수밖에 없다는 본래적 한계가 있으므로, 연구자는 작품의 내적 질서를 찾아내고 그것이 작품의 적 조건과 맺고 있는 관계의 망을 추적해서 보여주는 데에 머물러야 할 것이다.

- 3) 박태상, 「하생기우전의 미적 가치와 성격」(『동방학지』89·90합병호, 연세대학교학연구원, 1995)
정운채, 「하생기우전」의 구조적 특성과 「서동요」의 흔적들(『한국시가연구』2권, 한국시가학회, 1997)
최재우, 「하생기우전」의 결핍-충족 구조와 그 의미(『민족문학사연구』15호, 민족문학사연구소, 1999.12)
최재우, 『기재기이』의 조화지향 인물관계의 형상(『동방고전문학연구』2집, 동방고전문학회, 2000.8)
권도경, 16세기 『기재기이』의 전기소설사적 의의 연구(『한국고전연구』6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00.12)
- 4) 惟卿 德器宏博 學問淵源 堂堂一代之師儒 挺挺群寮之儀表(『企齋集』卷十四, 趙士秀, 文簡公行狀). 『企齋集』은 민족문화추진회가 편찬한 『한국문집총간』22에 수록된 것을 지칭하는 것이며, 앞으로의 인용은 모두 여기에 의

안 문형(文衡)을 말으며 당대 최고의 문장가요 학자로 추앙받았던 인물이다. 또한 「하생기우전」을 포함하여 『기재기이』의 작품들은 언어와 문자의 말단에 힘을 경주한 글들과 구분되는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므로,⁵⁾ 「하생기우전」에는 삶의 문제에 대한 작가의 생각이 잘 드러나 있다고 할 수 있다.

II. 문제의 해결방식

「하생기우전」은 입신양명의 꿈을 안고 태학(太學)에서 공부하던 하생(何生)이 점쟁이(卜師)의 말을 듣고 죽은 여인과 만나 사랑을 이루는 한편 그 여인을 살려내어 결혼하고 입신양명의 꿈도 이룬다는 줄거리로 되어 있다.

줄거리의 내용으로도 알 수 있듯이 「하생기우전」에는 서로 다른 두 가지 유형의 이야기가 공존하고 있다. 입신양명의 야망을 갖고 있던 하생이 마침내 꿈을 이루어 출세를 했다는 이야기가 서사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면, 하생이 죽은 여인과 만나 사랑을 나누었다는 이야기가 서사의 또 다른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출세담이 강렬한 사회의식의 바탕 위에서 대사회적인 관계를 다루는 것이라면, 애정담은 두 사람 사이에서 벌어지는 내밀한 감정의 교류를 다룬다는 점에서, 두 유형의 이야기는 지향점이 서로 다르

거한다.

5) 신광환의 문하생으로 『기재기이』의 출판에 앞장섰던 신호(申濩)는 『기재기이』의 작품들이 지극함에 이르러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놀라게 하며, 세상에 본보기가 되기도 하고 경계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뿐 아니라 백성의 도리를 붙들어 세워 명교(名敎)에 공로가 있는 것이 하나나 둘이 아니라고 하며, 『기재기이』의 작품들이 삶의 이치를 담아내고 있다고 하였다(及其至也 使人喜使人愕 有可以範世有可以警世 其所以扶樹民彝 有功於名敎者 不一再 『企齋奇異』跋)

다고 할 수 있다.

서로 다른 유형의 이야기를 함께 보여줌으로써 「하생기우전」은 자신의 세계를 쉽사리 드러내지 않는다. 「하생기우전」이 「만복사저포기」와 동일한 유형의 작품으로 분류되며 하생과 여인의 애정담을 다루고 있는 작품으로 널리 인식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런데 서사의 전개과정을 보면 「하생기우전」은 하생의 출세담으로 시작된다. 그리고 하생이 죽은 여인과 만나는 부분부터 작품은 하생과 여인의 애정담으로만 전개되고 입신양명을 위해 몸부림치는 하생의 출세담은 작품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린다. 서사의 분량에서도 애정담은 작품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생기우전」은 하생이 여인과 결혼하고 난 뒤 마침내 입신양명의 꿈을 이루는 것으로 종결된다. 출세담 - 애정담 - 출세담의 순서로 나타나며 하생의 출세담이 외곽 이야기가 되어 여인과의 애정담을 감싸고 있는 액자소설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출세담에서 시작해서 출세담으로 끝나고 있다는 것은 「하생기우전」이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그 문제의식을 해결하는 과정으로 짜여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생기우전」을 남녀 사이의 애정을 다루고 있는 작품으로 처리하는 것은 작품을 분해하여 일부분만을 다루는 것이다. 더욱이 이것은 작가가 작품을 창작한 창작의도마저 왜곡시킬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하생과 여인의 애정담을 하생의 출세담과 연결시켜 출세담에서 제기하고 있는 사회의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 하는 과정을 추적해 보는 것이 「하생기우전」을 이해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고 할 수 있다.

하생은 재주와 풍채가 뛰어났음에도 집안이 한미할 뿐만 아니라 궁핍한 데에 부모마저 일찍 잃고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처지에 있었다. 다행히 주위의 도움으로 태학에 입학하여

청운의 뜻을 가질 수 있었으나 이것마저도 조정의 정치가 어지러워짐으로써 기대하기 어렵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궁핍하고 한미한 집안의 재주 있는 자제로서 정치마저 정도를 찾지 못하는 어지러운 중세적 질서 속에서 입신양명을 위해 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은 사실 극도로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하생기우전」이 심각한 사회의식을 드러내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생은 국학에서 선비들과 재주를 겨뤄 독보적인 능력을 인정받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의 학문을 비루하게 여길 정도의 대단한 학식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어지러운 세상을 만나 자신의 능력을 펼칠 기회를 잡을 수 없었으므로, 하생은 사회에 대해 대단한 불만을 지니고 있었다.⁶⁾ 그런데 놀랍게도 자신에게 부딪힌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생이 선택한 길은 점쟁이를 찾아가 자신의 명수(命數)를 알아보는 것이었다. 하생이 문복(問卜)을 한 것은 자신의 수요화복(壽夭禍福)을 알아봄으로써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우하게 살아야만 하는 의혹을 해결하기 위함이었다.⁷⁾

점쟁이가 말했다. 부귀는 공께서 본래 가지고 있는 바이나 단지 요즈음(今日)이 매우 불길합니다. 점괘는 명이(明夷)가 가인(家人)으로 가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명이(明夷)는 밝음이 땅 속으로 들어가는 상(象)이고, 가인(家人)은 세상을 피해 한가롭게 사는 사람의 정절을 얻는 것이니 이롭습니다. 국도(國都)의 남쪽 문으로 나가 빨리 달려서 날이 저물도록 집으로 돌아오지 마십시오. 다만 재앙을 막을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배필을 얻게 될 것입니다.⁸⁾

- 6) 정치가 어지러워져 자신의 능력을 펼칠 수 없게 되자 하생은 답답하고 못마땅하여 울적한 세월을 보내게 된다(時朝政既亂 選舉亦不以公 荏苒四五載 抱屈鬱舍 常悒悒不樂「何生奇遇傳」)
- 7) 蔡澤所不知者壽 從唐生決之 吾聞駱駝橋傍 有卜師 言人壽夭禍福 期以日月 吾將就之 以決孤疑(「何生奇遇傳」)
- 8) 卜師曰 富貴公所固有 但今日甚不吉 占得明夷之家人 明夷者 明入地中之象 家人者 利見幽人之貞 可出國南門疾走 不至日暮 不宜還家 非但度厄 且得佳

위의 인용문은 점쟁이가 자신의 명수를 알아보려는 하생에게 한 말이다. 하생이 점쟁이를 찾은 것은 입신양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점쟁이는 입신양명에 골몰하여 읍양불락(愀怏不樂)하고 있는 하생에게 지금의 상태가 매우 불길하다고 경고하며,⁹⁾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는 서울의 남쪽 문을 나가서 날이 저물도록 돌아오지 말 것을 권고한다.

서울의 남문을 나서서 저물도록 돌아오지 말라는 것은 세상과 일정 기간 격리되어 있을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입신양명은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성취되는 것이다. 그런데 입신양명을 추구하는 하생에게 오히려 세상과 격리되어 있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제안이다. 그러나 점쟁이는 자신의 역설적인 제안을 받아들여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돌파구가 열리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점쟁이의 가르침에 따라 세상을 등지고 떠난 하생은 죽은 여인과 만나 아름다운 인연을 맺게 된다. 하생이 죽은 여인과 만난 곳은 여인의 무덤 속이었다. 점쟁이가 하생에게 뽑아 준 점괘, 즉 명이(明夷)가 가인(家人)으로 가는 점괘는 하생이 그날 밤 무덤으로 들어가 죽은 여인과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해 주는 것이었다.

세상과 격리되어진 공간, 그 곳은 격리됨으로 해서 세상과의 모든 관계가 단절되어 있다. 세상의 어느 한 지점이면서도 세상이 아닌 공간인 것이다. 세상과 격리된 곳에서는 현실과 비현실의 구분이 무의미해진다. 현실이 현실로서 존재의 의미를 가질 경우는 세상과 관계 맺고 있을 때이기 때문이다. 또한 현실과 비현실의 구분이 무의미해지면 사람과 귀신의 구분도 사라지게 된다. 사람

偶(「何生奇遇傳」)

9) 이런 점에서 인용문의 금일(今日)은 오늘이라는 협의적 개념으로 제한하지 않고, 요즈음이라는 포괄적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이야기의 합리적인 전개를 위해서 보다 적절할 수 있다.

은 현실공간에서의 존재이고, 귀신은 비현실 공간에서의 존재이지만 공간의 구분이 사라지면서 사람과 귀신을 가르는 삶의 경계가 허물어지기 때문이다. 하생이 죽은 여인과 인연을 맺었다는 것은 이런 인식의 지평 위에 서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산 사람이 죽은 여인과 만나 인연을 이루었다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면서도 가능할 수 있게 되었다.

무덤은 세상 중에 있으면서도 세상과 가장 철저히 격리되어진 공간이다. 그러므로 하생이 무덤으로 들어가 죽은 여인과 만났다는 것은 세상과 철저히 격리되어질 때 삶의 문제를 바라보는 새로운 인식의 지평이 열리게 되고, 그럼으로써 삶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의 우의적(寓意的)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하생이 점쟁이에게 자신의 수요화복(壽夭禍福)을 알아보려 하고, 그의 말을 좇아 자신을 세상과 격리시키는 부분에서 작품은 운명론적인 사고방식을 드러내고 있다. 운명론적인 사고방식은 절대적인 결정권자에 의해 현실의 질서가 결정된다고 생각한다는 점에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당사자의 노력을 일정하게 제한한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의 운명론은 수동적인 수용의 측면만을 강조하게 되고, 하생은 자신의 불우를 운명으로 받아들여 체념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체념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경우, 작품은 여기에서 더 이상의 서사적 운동력을 상실하고 종결되든가, 자포자기적인 퇴영적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러나 「하생기우전」은 하생이 점쟁이에게 자신의 운명을 알아본 뒤 자신을 세상과 격리시키는 것으로 종결되지도 않고, 하생과 여인의 애정담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상실한 퇴영적 분위기 속에서 전개되지도 않는다. 「하생기우전」에서의 운명론이 속류의 운명론적 사고방식을 넘어서는 사유(思惟) 위에 구축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망령되어 출세에 뜻을 두고 (그것을) 얻을 수 있다 여기며 공업(功業)을 가리켜 (그것도) 취할 수 있다 하고는, 부귀(富貴)가 하늘에 있으며 길흉(吉凶)이 사람에게서 말미암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지나다 점쟁이의 말을 듣고 마침내 이곳에 이르렀습니다.¹⁰⁾

위의 인용문은 하생이 여인의 거처를 찾아온 이유를 밝히는 부분에서 인용한 것인데, 여기에서 하생은 점쟁이에게 자신의 명수를 알아보려 했던 진정한 이유를 밝히고 있다. 불우한 상황에서 점쟁이를 찾은 것은 단순히 자신의 운명과 미래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보려 했던 것이 아니라, 부귀와 길흉이 어떻게 결정되는가를 알고 싶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자신의 운명에 대한 의문이 아니라, 삶의 진정한 이치를 알아보려 했던 것이 주된 목적이라는 말이다. 「하생기우전」의 운명론이 퇴영적 분위기를 연출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이 작품이 삶의 이치를 탐구하려는 건강한 목적 위에 구축되어 있기 때문이었다.

그 결과 하생은 지금까지 삶의 진정한 이치를 알지 못했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 과거에는 알지 못했던 것을 이제 알게 되었다는 고백인 것이다. 하생이 알게 된 것은 “부귀가 하늘에 있으며, 길흉이 사람에게서 말미암는다(富貴在天 吉凶由人)”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실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어떤 차이를 가져오게 되는가. 알지 못했다는 하생의 고백은 알게 됨으로써 삶에 대한 자신이 태도가 달라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부귀재천(富貴在天)을 알지 못했을 때 부귀는 인간들의 힘으로 성취할 수 있는 대상으로 인식된다. 그리고 인간들의 힘으로 성취되는 대상이 될 때, 부귀는 종종 그 자체가 삶의 목적이 된다. 깨닫기 이전의 하생이 출세에 뜻을 두고 공업을 이룰 수 있다 하며

10) 妄意青紫可收拾 功業可指取 不識富貴在天 吉凶由人 今日過聽卜師之言 乃至於是(「何生奇遇傳」)

적극적으로 입신양명을 위해 노력했다는 것은 그가 부귀를 자신의 힘으로 얻으려 했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 때 하생은 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두운 시절을 보내야 했다. 국학(國學)에서 발군의 실력을 발휘하여 장래가 촉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아 4,5년을 헛되이 보내며 답답하고 못마땅하여 울적하게 살아야 했다.¹¹⁾ 답답하고 울적했던 것은 부귀를 얻는 것이 존재의 목적이었음에도 목적이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부귀재천(富貴在天)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삶을 건강하게 만들지 못한다. 부귀를 얻지 못해 음양불락(愜快不樂)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심각하게 왜곡시키며 파괴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흥(興)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부귀재천(富貴在天)을 깨달은 사람은 부귀를 삶의 목적으로 삼지 않기에 부귀에 얽매이는 삶을 살지 않게 된다. 이런 사람은 세상을 관조하며 살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된다. 무엇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은 얽매임으로써 생기는 근심에서 자유롭게 되고, 이것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삶을 건강하게 만든다. 길(吉)이 또한 사람에게서 말미암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부귀재천(富貴在天)을 깨닫지 못했을 때 하생은 자신의 욕망에 이끌려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아가고 참여하려는 입장에 서있었던 데에 비해, 깨달은 이후 물러서서 관조하는 자세를 터득했다고 할 수 있다. 입신양명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있었을 때 하생의 관심은 세상을 향해 열려 있었지만 자신의 명수를 알아보려 하면서 하생은 관심의 방향을 자신의 내부로 돌리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삶의 진정한 이치를 깨닫게 되었고 살아가는 자세도 바꾸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1) 既赴國學 與諸生較藝 莫能或之先者 生以爲龍頭可捷 青雲可步 鰲然有高世之志 時朝政既亂 選舉亦不以公 荏苒四五載 抱屈囊舍 常愜快不樂(「何生奇遇傳」)

그런데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하생과 여인의 애정담 역시 두 사람이 애정을 성취해 가는 과정으로 짜여져 있다. 남녀가 만나서 문제에 부딪히고 그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이 애정담의 일반적인 전개과정인 것이다. 그러므로 「하생기우전」이 애정담을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하생과 여인이 그들에게 부딪힌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여인의 집(무덤)을 처음 찾아갔을 때 하생은 홀로 사는 여인이 함부로 외인을 들일 수 없다는 이유로 대문에서 쫓겨난다.¹²⁾ 그러나 산중에서 어려움에 처해 의탁해 온 사람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는 여인의 배려에 의해 하생은 여인과의 첫 만남을 이루게 된다. 여인이 자신의 처지만을 내세우지 않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배려해주는 데에서 두 사람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연분이 이루어진 날 밤 여인은 하생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힌다. 자신이 죽은 사람이며 누군가를 만나서 무덤에서 벗어나야 하는 절박한 처지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하생에게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부탁하기도 한다.¹³⁾ 하생은 태학에서 성인의 가르침을 공부하며 유학자로 행세하는 자이다. 당연히 괴력난신(怪力亂神)을 배격하는 입장에서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여인이 자신의 정체를 밝힌 것은 두 사람 사이에 찾아 온 첫 위기가 된다.

그러나 두 사람 사이의 위기는 하생이 여인의 부탁을 흔쾌히 받아들임으로써 해소된다. 유학자로서 귀신과 정분을 나누었을 뿐만 아니라 무덤에서 자신을 꺼내달라는 해괴한 부탁도 들어주겠다고 나선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생은 여인과

12) 侍兒咄曰 是處小娘子獨寓 固非客宿之所 便鎖門而入(「何生奇遇傳」)

13) 此實非人世 妾乃侍中某之女也 死而葬此 今已三日矣 期在曉日 過此則更無其蘇之望 今者邂逅郎君 是亦命也 欲托永好 終奉巾櫛 未識許否(「何生奇遇傳」)

의 연분을 계속 이어가길 원하며,¹⁴⁾ 부탁마저 들어주겠다고 했다. 여인의 처지를 이해하고 그 안타까운 처지에 공감했기 때문이다.

하생 역시 울며 말했다. 진실로 당신의 말과 같은 것이라면 마땅히 목숨을 걸고 당신의 소원을 이루어주겠소.¹⁵⁾

위의 인용문은 여인의 부탁에 대한 하생의 반응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여인의 말을 듣고 하생이 눈물을 흘리며 그 부탁을 들어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눈물을 흘렸다는 것은 하생이 여인의 처지를 이해했을 뿐만 아니라 충분히 공감하기도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생은 출세를 인생의 목표로 삼고 있는 사람이었다. 이 때의 하생은 다른 사람의 학문을 하찮게 여겼으며, 자신의 능력을 알아주지 않는 세상에 강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 자신의 문제에 몰두하여 다른 사람이나 세상을 이해하려하지 않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여인과 만나고 나서 하생은 여인의 처지를 이해하고, 공감하여 눈물을 흘리기까지 한다.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의 처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세상에서 물러나 관심의 방향을 자신의 내부로 돌린 뒤 자기 성찰을 통해 사고의 폭이 넓어지고 유연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인은 당시 권력의 핵심부에 있었던 시중(侍中) 모씨의 하나밖에 없는 딸이었다. 이에 비해 하생은 한미한 집안의 자제였다. 탁월한 재능을 지니고 있었음에도 입신양명의 꿈을 이루지 못했던 것도 이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여인과의 관계를 지속시키는 것은

14) 하생은 여인과 헤어지며 읊은 시에서 다음과 같이 다시 만나기를 원하는 심정을 밝히고 있다.

꽃은 비단 휘장에 숨고 푸른 구름은 잠겨있는데 花藏繡幕碧雲沈
별의 노닐을 허락한다 하니 다음에 다시 찾으리라 肯許遊蜂取次尋
(「何生奇遇傳」)

15) 生亦泣曰 苟若子言 當生死以之(「何生奇遇傳」)

하생이 자신의 삶을 바꾸어 줄 수 있는 구원자를 자기편으로 만드는 것이었다. 자신의 꿈을 이룬다는 하생의 이기적 목적이 여인과의 관계를 지속하게 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작품은 논리적 궁지에 몰리게 된다.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드러난 것처럼 하생과 여인이 만나서 아름다운 인연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사람의 처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사고의 폭이 확대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여인은 하생을 통해서 무덤에서 구출될 수 있었고, 하생은 여인을 통하여 입신양명을 꿈꿀 수 있게 된다. 이기적 목적이 두 사람 사이에 개입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두 사람의 관계가 서로의 필요에 의해 이루어진 이기적 목적의 결과라면 사고의 폭이 확대되었다는 것은 가식이고 허위가 된다. 가식과 허위는 진실이 아니므로, 사고의 폭이 확대되었다는 논리는 거짓이라는 결과에 부딪히게 되는 것이다.¹⁶⁾

이런 점에서 여인이 하생을 통해서 무덤에서 구출되고, 하생은 여인을 통해서 입신양명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짜여져 있는 것은 이 작품의 명백한 허점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적 목적성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이 작품의 의미가 왜곡되어진다. 무엇보다 두 사람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 상대를 이용하려는 이기적 목적을 행위의 의도로 갖고 있지 않고 있으며, 작품의 분석과 정에서도 계속 드러나고 있듯이 「하생기우전」은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날 것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고, 이것이 작품의 서사적 전개를 담당하는 핵심적인 장치로 기능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생기우전」은 운명론을 적절하게 이용하여 이기적 목적성의 문

16) 이 때문에 하생과 여인의 애정담은 사랑의 애절함과 절실함이 이기적 목적에 의해 희석되어버림으로써, 사랑을 통하여 존재의 의미를 추구하려는 진지함이 결여되어 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윤채근, 『소설적 주체, 그 탄생과 전변』, 월인, 1999, 352~361쪽).

제를 해결하기도 한다. 여인은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자신을 무덤에서 구출해 줄 것을 부탁하는 대목에서 하생과 자신의 만남이 운명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¹⁷⁾ 또한 첫 만남에서 연정을 품고 다가오는 하생을 받아들이면서도 업보(業報)의 인연을 거론하며 그들의 만남이 운명적인 것임을 밝히고 있다.¹⁸⁾ 하생과 여인의 만남이 운명에 의해 필연으로 예정되어 있었고, 만남 이후에도 연분을 이어갈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었다는 말이다. 하생과 여인의 관계가 운명에 의해 준비되고 예정되어 있었다면 그들의 만남은 이기적인 목적의 결과가 아니라 운명을 받아들이는 행위가 되는 것이다.

하생과 여인의 관계에서 운명이 강조되고 있는 것은 만남의 필연성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필연성만을 강조하게 되면 만남의 모든 과정이 하늘에 의해 예정되었던 당연한 결과로 처리되므로, 만남을 온전하게 하기 위한 인간들의 노력이 무시될 수 있다. 그러므로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자신들의 만남이 운명에 의해 예정되어 있던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생과 여인은 그들의 만남을 온전히 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때문에 「하생기우전」은 도처에서 운명을 거론하고 있음에도 오히려 운명을 넘어서 삶의 진정한 이치를 추구하고, 그 결과 사고의 폭이 확대되어 아름다운 연분을 만들어 가는 인간들의 행위를 서사의 중심축으로 다루고 있다.

『기재기이』소재의 다른 작품인 「최생우진기」에는 최생이 용궁에 가서 「용궁회진시(龍宮會眞詩)」를 읊는 대목이 있다. 이 부분에서 용왕은 최생이 삶의 이치에 통달해 있는 선비라고 칭찬하고 있다. 수재(水災)와 한재(旱災)를 하늘의 운수로 돌리지 않고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일을 공들여 행했다는 데에 요(堯)임금과 탕(湯)임금의 위대한 점이 있다는 것을 최생이 지적했기 때문이다.¹⁹⁾ 운명과 인

17) 今者邂逅郎君 是亦命也(「何生奇遇傳」).

18) 業緣已成 不可躲也(「何生奇遇傳」).

19) 왕은 9년 홍수와 7년 가뭄의 구절을 거듭 음미하고 동선(洞仙)에게 말했다

간들의 노력을 병치시킨 다음 운명을 필연으로 만들어 가는 인간들의 노력을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운명을 거론하면서도 운명이 인간들의 삶을 지배한다고 하지 않고, 운명을 통해 삶의 진정한 이치를 추구해가는 인간들의 행위를 다루는 것이 『기재기이』의 한 특징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생과 여인의 관계는 여인이 무덤에서 환생한 후 여인의 부친이 문벌의 격차를 이유로 두 사람의 결합을 반대함으로써 또 다른 위기에 부딪히게 된다. 여인의 환생 후에 부딪힌 위기는 여인의 부친이 여인과 하생 사이에 개입함으로써 파생된다. 「하생기우전」은 여기에서 처음으로 인물 사이에 대립과 갈등의 관계가 형성된다. 여인의 부친은 하생과 딸을 결합시키는 대신 적당하게 대접하여 하생을 돌려보내려 하고, 하생은 이것을 불쾌하게 생각하며 여인이 자신에게 몸을 의탁하겠다는 애초의 약속을 저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기도 한다.

인물 사이에 갈등이 생긴 것은 여인의 부친이 사태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하생과 여인의 관계를 떼어놓으려 했기 때문이다. 이제 하생과 여인은 그들의 운명적 결합을 이루기 위해서 여인의 부친과 대립해야 하게 된 것이다.

인물 사이의 대립관계를 풀어나가는 것은 여인이다. 그러나 「하생기우전」에서 대립은 갈등이 표면으로 불거지며 다툼을 통해 결과를 이끌어내는 양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더욱 소원해지는 것도 불효이고, 작은 것으로 격노하는 것도 불효

다. 최생은 이치에 통달한 자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유학자가 임금에게 아첨하는 자가 많아서 수재와 한재를 하늘의 운수에 맡기는데, 수재와 한재를 하늘의 운수로 여기고 사람들이 할 일을 하지 않는다면 어찌 요와 탕 임금을 위대하다 하겠습니까(王再吟九年水七載旱之句謂洞仙曰 崔生可謂達理者非也 世儒者諂其君者多 以水旱 委諸天數 如以水旱爲天數 而不修人事 則何貴乎堯湯「崔生遇眞記」)

입니다. 감히 소원하게도 못하거니와 격노하게 될까 두렵습니다.²⁰⁾

위의 인용문은 여인이 하생과의 결합을 가로 막는 부친의 허물을 지적하기 전에 자신의 생각을 밝히고 있는 부분이다. 인용문에서 “더욱 소원해지는 것도 불효이고, 작은 것으로 격노하는 것도 불효입니다”는 말은 『맹자(孟子)』의 「고자장구(告子章句)」에서 소반(小弁)의 시를 논평하는 부분에서 인용해 온 것으로, 여인이 부친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맹자(孟子)』의 이 대목은 부모에게 허물이 있을 경우 자식이 부모에 대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를 다루고 있는 부분이다. 먼저, 부모에게 큰 허물이 있을 경우 자식은 부모를 원망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원망하지 않고 모른 채 하는 것은 부모가 허물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니 이는 부모와 자식의 사이가 소원해지는 것이고 따라서 불효가 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원망이 부모와 대립하기 위함이 아니라 부모가 큰 허물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면, 원망은 부모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안타까운 마음의 바탕 위에서 나와야 한다. 또한 자식은 부모에 대해 격노하지 말아야 하는데, 격노하는 것은 부모를 이해하고 용납하기보다 자기 본위로 부모를 대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²¹⁾

여인은 하생과의 사이를 가로 막는 부친을 원망하려 하면서도 소원하게 되는 것과 격노하는 것 모두를 경계하고 있다. 허물을 지적하되 부친을 사랑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배어있어야 하고, 자신의 주장을 하되 부친의 처지와 입장을 이해하고 용납해야 하는 것이다. 이 상황에서 여인은 먼저 자신이 부모님의 사랑 속에서 성장했음을 밝히고 뜻하지 않은 재앙을 만나 죽음에 이르게 되었

20) 愈疎不孝也 不可磯 亦不孝也 非敢爲疎 恐爲磯也(「何生奇遇傳」).

21) 이 부분의 해석은 주자(朱子)의 견해를 참고했다(原本備旨 孟子集註, 朝鮮圖書株式會社發行, 1922).

으나 아버님의 덕행에 힘입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쁨이 마련될 수 있었다고 하며, 하생을 만나 살아나게 된 것은 하늘의 뜻이니 마음을 돌려 자신들의 결합을 허용해 달라고 했다.

여인은 먼저 자신이 부모님의 사랑 속에 살고 있음을 밝힘으로써,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다. 그리고 부친의 허물을 지적하면서도 대립관계를 조성하지 않고 자신들의 처지를 이해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이처럼 상대방에 대한 배려 위에서 이루어지는 여인의 호소는 부친에게 진정성을 전달할 수 있었고, 부친은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허물을 고백하고 있다.

시중은 눈물을 뿌리며 탄식하여 말했다.

“나의 충성스럽지 못하고, 자애롭지 못한 것이 너로 하여금 이에 이르게 하였구나. 뉘우친들 미치겠느냐. 연분을 맺어 스스로 운명을 결정하였으니 마땅히 너를 위해 이루어주겠다.”²²⁾

시중이 눈물을 흘린 것은 진정으로 자신의 허물을 깨닫고 하생과 여인의 처지를 이해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여인의 부친이 개입하면서 형성되었던 인물 사이의 대립관계가 해소되었다. 대립관계가 해소된 것은 자기의 주장만을 내세우지 않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을 인간관계의 지침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부친과의 대립관계를 해소한 뒤 하생과 여인은 결혼하여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 이렇게 볼 때, 하생과 여인의 애정담에는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만남의 직접적 계기가 되었을 뿐 아니라, 관계를 발전시키고 위기를 해소하며 행복한 결말을 이끌어 내는 장치가 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남녀 사이의 내밀한 감정의 교류를 다루고 있고, 또 운명적인 만남으로 이루어졌을지라도 두 사람 사이의 애정이 행복하게 성취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이해하고

22) 侍中揮涕噫噫曰 我之不忠不慈 使汝至此 悔將及乎 紅繩繫足 自有定命 當爲汝成之(「何生奇遇傳」).

포용하려는 것을 인간관계의 중심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하생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해하고 포용하려는 자세는 관심의 방향을 자신의 내부로 돌리는 자기성찰을 통해 삶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도달했을 때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하생과 여인의 애정담은 인간관계의 바른 도리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보여주기 위한 목적 위에 서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생기우전」이 사랑의 절실함을 통해 존재의 의미를 추구하려 했던 것이 아니라, 하생과 여인이 맺어가고 있는 인간관계를 통해 이상적인 인간관계의 한 전범을 보여주려 했다고 할 수 있다.

이제 하생과 여인의 애정담을 하생의 출세담과 연결시켜주는 작품적 장치를 찾아보고, 애정담이 출세담에서 제기하고 있는 사회 의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기로 한다. 「하생기우전」은 여인의 부친이 하생과 여인의 결합을 반대하도록 설정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시중은 성대한 잔치를 베풀어 하생을 위로하고는 집안의 내력과 결혼의 유무를 물어 보았다. 하생은 장가들지 않았고, 아버지는 평원 향교의 생도로 돌아가신 지 오래되었다고 대답했다.

시중은 고개를 끄덕이고 들어가 부인과 상의하여 말했다.

“하생의 용모와 재주는 실로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사위를 삼는데 무엇이 의심스럽겠소. 다만 집안이 대등하지 못하고, 일이 또 허탄합니다. 이 때문에 허여하게 된다면 세상의 평판을 놀렐까 두렵습니다. 나는 후히 대접하여 보낼까 합니다.”²³⁾

위의 인용문은 여인의 부친이 하생과 여인의 결합을 반대하는 부분의 것인데, 이야기의 요지는 하생이 용모와 재주는 뛰어난지만 집안이 한미하여 딸과 결혼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혼사장애를

23) 侍中張盛宴以慰生 仍問家世 又問娶不 生答以不娶 父則平原校生 沒已久矣 侍中領之 入與夫人謀曰 何生容貌才氣 實非常人 妻之何疑 但家世不敵 事又夢誕 因以與之 恐駭物論 吾欲厚遣之(「何生奇遇傳」).

다루고 있는 이 부분은 작품의 처음 부분에서 하생이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었음에도 집안이 한미하여 입신양명의 야망을 이루지 못했던 내용과 동일하다. 다만 출세 대신 결혼으로 대상이 달라져 있을 뿐이지만, 애정담은 출세담과 마찬가지로 뛰어난 재주를 갖고 있음에도 집안이 한미하여 아무런 사회적 성취도 이루지 못하도록 조건 지워져 있다. 또한 과거시험이 공정하게 운영되지 않아 마땅히 과거에 급제해야 할 하생이 부당하게 탈락되었던 것처럼, 여인의 부친은 하생과의 결혼을 반대함으로써 딸의 목숨을 구해준 생명의 은인을 저버리는 부당한 횡포를 자행한다. 사회적 성취를 이루지 못한 것이 사회의 부당한 횡포 때문이라는 것도 애정담과 출세담의 공통점이다.

이런 점에서 하생의 애정담과 출세담은 서로 다른 유형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동일한 유형으로 묶여지는 이야기가 서로 다른 양상으로 드러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출세담과 애정담이 성립되는 작품내적 조건을 동일하게 설정함으로써, 「하생기우전」은 이들을 동일한 유형의 이야기로 묶을 수 있었고 그럼으로써 한 작품 내에 공존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애정담과 출세담의 작품내적 조건이 동일하게 설정되어 있다는 것은 「하생기우전」이 애정담을 통하여 사회의식을 우의적으로 드러내려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입신양명의 꿈을 이루지 못해 읍양불락(愀怏不樂)하고 있는 하생의 모습을 보여준 뒤, 여인과의 애정담을 통하여 하생에게 부딪힌 사회적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어야 하는가를 보여주려 했던 것이다. 그 결과 「하생기우전」은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음에도 사회가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는 문제에 부딪혔을 때, 자신의 입장만을 내세워 사회에 불만을 갖기보다 세상에서 한 걸음 물러서서 관심을 자신의 내부로 돌려 사고의 폭을 확장시켜야 하고, 대립과 투쟁이 아닌 이해와 포용으로 인간 관계를 맺어 감으로써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

다. 이런 점에서 하생의 출세담이 애정담으로 교체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생기우전」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회적 문제의식을 서사의 중심축으로 다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애정담을 통해 우의적으로 드러냄으로써, 사회적 문제의식은 직접 다루어지지 않고 간접화되어 나타난다. 이것은 세상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오히려 세상과 격리되어 자아성찰에 힘써야 한다는 것과 동일한 논리로 해석되어 진다. 다시 말해서 세상과 격리되어 자아성찰에 힘쓰라는 것은 세상과 직접 부딪히지 말고 간접적이며 우회적인 방식을 사용하여 문제에 접근하라는 것이다. 「하생기우전」은 하생의 출세담과 애정담을 공존시킴으로써 사회적 문제를 다룰 때 직접적인 방식보다는 간접화시켜 우회적으로 다루는 것이 보다 생산적인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 했던 것이다.

Ⅲ. 작가의식과의 관계

「하생기우전」은 부조리한 사회에 대해 불만이 있을 때 오히려 세상과 격리되어 세상을 향해 열려 있던 관심의 방향을 자신의 내부로 돌려 자기성찰에 힘쓸 것을 제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인간관계를 맺음에 있어서도 대립과 갈등을 일으키기보다는 이해하고 포용하려 해야 하며, 사회적인 문제를 다룰 때에도 직접적인 방식보다는 간접적이며 우회적인 방식을 사용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종일관 사회적인 문제의식을 잃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끝까지 경주해야 한다는 것이 「하생기우전」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몇 가지 방식이었다.

「하생기우전」에 나타나 있는 문제의 해결방식은 작가인 신광한의 삶과 의식구조를 이해할 때 납득되어진다. 신광한의 생몰연대

는 1484(성종 15)년에서 1555(명종 10)년까지이다. 시기적으로 그는 네 번의 사화(士禍)를 모두 생애 중에 겪었다. 14세인 1498년 무오사화(戊午士禍)가 일어났고, 1504년 20세에 갑자사화(甲子士禍)가 있었다. 어린 나이에 두 차례의 사화를 보고 들으며 그는 일찍 사회적인 문제의식에 눈을 뜰 수 있었다. 유조사(有鳥辭)를 지어 연산군(燕山君)의 폭정에 강한 불만을 토로하였고, 연산군의 폭정으로 화(禍)가 집안에 미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민첩한 현실 대응력을 보여주기도 했다.²⁴⁾

신광한은 1507(중종 2)년 24세에 사마시(司馬試)를 거쳐 27세가 되던 1510(중종 5)년에 승문원권지(承文院權知)로 처음 벼슬길에 오르게 된다. 환로(宦路)에서 그는 조광조(趙光祖)를 비롯한 신진사류(士類)들과 행보를 함께 하며 사회 변혁을 위한 일에 앞장선다. 내수사장리(內需司長利)의 혁파를 건의하는가 하면,²⁵⁾ 현량과(賢良科)의 설치를 건의하기도 하고,²⁶⁾ 소격서(昭格署)의 혁파를 주창하다 임금이 받아들이지 않자 사직을 청하기도 했다.²⁷⁾

내수사장리(內需司長利)의 혁파와 소격서(昭格署)의 혁파는 중종 임금 때에 새롭게 등장한 신진 사림(士林)들이 추진했던 개혁정치 의 하나로 궁중(宮中)과 연결된 훈구파의 지배기반을 약화시키고, 불교나 도교와 같은 이단적 사전체제(祀典體制)를 성리학적 체제로 대체시킴으로써 성리학적 질서를 지배적 질서로 구축한다는 등의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었다.²⁸⁾ 그러므로 사림 세력의 정계 진출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던 현량과의 설치를 주장하고, 내수사장리(內需司長利)의 혁파와 소격서(昭格署)의 혁파를 주장했다

24) 조사수, 문간공행장(『기재집』 권14).

25) 『중종실록』 권24, 11년 정축조(丁丑條), 무신조(戊申條).

26) 『중종실록』 권32, 13년 신해조(辛亥條).

27) 『중종실록』 권33, 13년 무술조(戊戌條), 기해조(己亥條).

28) 이병후, 『조선전기 사림파의 현실인식과 대응』(일조각, 25~28쪽, 1999).

는 것은 신광한이 사회적 문제의식을 갖고 사회 변혁에 앞장섰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1521(중종 16)년 기묘사화(己卯土禍)에 연루되어 과직당한 후, 1538(중종 33)년 서용(敍用)되기까지 17년이라는 긴 시간을 신광한은 여주(驪州) 원형리(元亨里)에서 세상과의 관계를 온전히 끊고 칩거한다. 그런데 다시 정계에 진출한 신광한은 자신의 직임(職任)에만 충실할 뿐 일체의 정치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 사림과의 노선에 따른 사회변혁을 주장하지 않았다는 말이다. 오히려 그는 사회 변혁에 앞장섰던 과거를 반성하고²⁹⁾ 이후로는 사회를 개조하기 위한 투쟁적 행위에 비판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더욱이 1545(명종 즉위년)년 을사사화(乙巳土禍) 이후 그는 낙봉(駱峰) 서쪽 기슭에 정사(精舍)를 짓고 그곳에서 도서(圖書)와 송죽(松竹)을 벗 삼아 신선처럼 살았다고 한다.³⁰⁾ 신선처럼 살았다는 것은 그가 세상과의 관계를 절연하고 탈속적(脫俗的) 세계의 흥취에 빠져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신광한의 대사회적(對社會的) 행위를 검토해 볼 때, 젊은 시절의 그는 사회적 문제의식을 강하게 지니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서용(敍用) 이후 신광한의 행위는 자신을 세상과 격리시켜 놓은 뒤 일체의 사회적 문제의식을 방기한 것처럼 보인다. 관료로서 정계에 진출한다는 것은 자신의 사회적인 문제의식을 실현시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때, 신광한의 행위는 납득할 수 없는 것이 된다. 신광한이 기묘년(己卯年)의 일로 혐의가 되어 자신의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논박을 받은 것이나,³¹⁾ 다시 조정에 돌아와 건의한 것이 없고 후학들을 권장한

29) 서용(敍用)되던 해(1538년) 신광한은 중종 임금에게 자신의 과거 행위가 잘못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다(『중종실록』권87, 33년 기축조(己丑條).

30) 홍섬, 문간신공묘지명(『기재집』권14).

31) 『중종실록』권102, 39년 을축조(乙丑條).

것도 없다거나,³²⁾ 몸을 보전하고 벼슬자리를 지키기 위해 세로(世路)에 부침하였다고 평가를 받은 것은³³⁾ 신광한이 사회적 문제의식을 상실했다고 보았기 때문에 나온 평가들이다.

신광한에게 나타난 이러한 변화는 「하생기우전」의 첫 부분에서 사회적 문제의식을 강하게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출세담이 애정담으로 바뀌며 사회적 문제의식이 작품에서 사라지고 마는 것과 동일한 현상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러나 「하생기우전」이 애정담을 통해서도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고 있듯이 신광한 또한 사회적 문제의식을 온전히 방기한 것이 아니었다.

신광한은 충후하고 인자하여 재상의 풍도가 있어 사류(士類)들이 모두 그를 의지하였으나 노병(老病)으로 벼슬을 사양하니 모두 애석하게 여겼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³⁴⁾ 사류들이 모두 신광한을 의지하였다는 것은 세력을 위해 빌붙었다는 것이 아니라 신광한의 주장과 생각에 많은 사류들이 공감했다는 것이다. 사회적인 문제의식을 방기한 것처럼 보이고, 그것으로 인해 많은 비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신광한에게는 간단하게 배척될 수 없는 나름대로의 사회의식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하께서 간신들에게 기만당하신 이후로 아무도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고 여겨 위에서 신하를 믿지 못하자 신하도 위를 믿지 못하여 상하 간에 정의가 미덥지 못 합니다 대체로 임금(自然의) 재변(災變)을 만나 두려워하되 마땅히 가깝게는 자신을 살피고 멀리서 시정(時政)을 살피야 합니다. 임금 자신이 바르면 정사가 어찌 바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자신이 바른 다음에 가정이 바르게 되고 가정이 바른 다음에 조정에 미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임금이 이런 일에 힘을 줄 모르고 밖으로 신하들이 할 자질구레한 일들

32) 『명종실록』권14, 8년 신사조(辛巳條).

33) 『명종실록』권16, 9년 기축조(己丑條).

34) 『명종실록』권13, 7년 경인조(庚寅條).

을 세세히 살피려고 한다면 대체(大體)가 이미 상실되고 유익함이 없게 될 것이니 이 때문에 간흉들이 기탄할 것이 없게 되어 그 사이에 함부로 뜻을 펴게 되는 것입니다 임금의 위중(威重)한 위엄으로 진작되기 어려운 사기(士氣)를 누르면 꺾이지 않을 자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처럼 사기가 매우 꺾였을 때에 그 폐단을 구제하려면 언로(言路)를 활짝 열어두는 방법만한 것이 없습니다.³⁵⁾

위의 글은 신광한이 서용(敍用)되어 정계에 복귀한 그 해에 시정(時政)의 폐단을 고치기 위해 종종 임금에게 올린 글의 일부인데, 긴 시간의 은둔기를 거치며 형성되었던 사고의 변화를 알 수 있게 해준다. 글의 대체적인 내용은 자연의 재변을 통하여 국가 경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폐단을 고치자는 것이며, 고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신광한은 위의 글에서 자연의 재변이 조정에서 임금과 신하 사이에 믿음이 사라진 재변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이를 고치기 위해서 임금은 먼저 자기 자신을 살피서 바르게 해야 하고, 언로(言路)를 열어서 신하들이 임금에게 하고 싶은 말을 기탄없이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 임금과 신하 사이의 관계가 바르게 설정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재변을 가속화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임금이 자기 성찰은 하지 않고 신하들이 무엇을 하는가에만 관심을 갖고 일일이 간섭하여 살피는 것이다. 임금이 신하들을 믿지 못하고 자기 식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려 한다는 말이다. 이것은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다. 무엇보다 자기 성찰의 기회가 줄어들게 되어 문제의 핵심을 꿰뚫어 보고 처리할 수 있는 통찰력과 해결능력이 떨어지게 된다. 그리고 신하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모든 일을 독단적으로 처리하여 신하들과 대립적이며 적대적인 상태를 유발시키게 된다. 이 때 조정은

35) 『중종실록』권88, 33년 임신조(壬申條).

재변에 휩싸이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살펴서 바르게 하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은 세상일에 간섭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려 하기보다 외부(세상)로 향해 열려 있는 관심의 방향을 자신의 내부로 돌려 자기 확충에 노력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언로(言路)를 열어두라는 것은 자기류의 독단적 판단으로 세상과 대립적이며 투쟁적 관계를 유지하지 말고, 다른 사람과 세상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려는 포용력을 기르라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신광한은 세상을 향해 열려 있는 관심의 방향을 자신의 내부로 돌리고, 세상과 대립적 관계를 유지하기보다 세상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려는 포용력을 기르는 데에서 재변이 사라지고 시정의 폐단이 고쳐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남의 의견을 따른 것은 순(舜) 임금의 성인이 된 까닭이었습니다. 사람의 상정(常情)으로는 자신을 지키는 자는 견고하고 남을 따르는 자는 경박합니다. 그러나 만일 자신만을 옳게 여기고 남을 따르려 하지 않는다면 끝에는 교인(驕吝)한 습성을 이룰 것입니다.³⁶⁾

위의 인용문은 네 번에 걸쳐 일어났던 사화의 마지막을 장식한 을사사화(乙巳土禍)가 사림(士林)들에게 몰아친 피의 회오리를 가속화시켜 나가던 명종 1년, 어수선한 정국 속에서 신광한이 명종 임금에게 주청(奏請)한 말이다.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남의 의견에 귀 기울이라는 것이다.

을사사화는 윤원형(尹元衡) 일파가 명종의 왕위 계승권을 확고하게 하려는 문정왕후(文定王后)와 공모하여 자기류의 아집(我執)으로 세상을 바꾸려고 시도하면서 일어난 것이다. 이들은 다른 사

36) 『명종실록』 권3, 1년 병진조(丙辰條).

람들의 말에 일체 귀 기울이지 않고 고집스레 자신들의 주장만을 내세워 기어이 대참화(大慘禍)를 일으키고 말았다.³⁷⁾ 그러므로 남의 의견에 귀 기울이라는 신광한의 주청은 시정(時政)의 폐단을 고치기 위해 종종 임금에게 올렸던 앞의 글에서처럼 자기의 주장만을 앞세워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말고, 세상을 향해 열려져 있는 관심의 방향을 자신의 내부로 돌리고 다른 사람과 세상을 이해하고 포용하려는 자세를 가지라는 충고였던 것이다.

「하생기우전」에서 하생은 세상을 향해 열려 있던 관심을 자신의 내부로 돌리고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포용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하생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문제해결방식은 신광한의 생각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하생이 이러한 깨달음에 도달하기 위해 세상과 격리되는 과정을 거치고 있듯이 신광한은 기묘사화(己卯土禍)에 연루되어 세상과 격리되는 긴 은둔기를 거치며 인간과 사회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바꾸게 되는 것이다.

세상과 격리되면서 신광한은 관심의 방향을 자신의 내부로 돌려 심각한 자기 성찰을 통해 세상과 삶에 대한 이치를 탐구하는데 몰두하고 있다. 나나니벌(蠃)이나 오이(瓜)의 상태를 관찰하고 이를 통해서 우주와 인간사의 섭리와 이치를 추구하는 진지한 자세를 보이기도 했다.³⁸⁾ 관심의 방향을 내부로 돌리자 세상일에 몰두했을 때에는 그냥 지나쳤을 하찮은 사물에서도 삶의 이치를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다. 아래의 글은 은거 시절의 신광한이 세상으로부터 격리되어 자기성찰에 이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37) 윤원형 일파가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묵살하고 자신들의 주장만을 내세워 사회를 일으키는 과정은 『명종실록』권1에 자세하게 나와 있다.

38) 글의 내용을 보면 신광한은 삼척부사에서 파직된 2년 후인 1523년에 나나니벌의 상태를 관찰한 「蠃化螟蛉記」를, 1531년에 오이의 상태를 관찰한 「圃田合歡瓜說」을 썼다는 것을 알 수 있다(『企齋集』文集 卷一).

이제 두 오이가 합하여 하나가 되었으니 이는 둘이 하나가 되는 육합(六合)의 형상이 아니겠는가.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은 음양(陰陽)이 화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이고, 육합은 상(上), 하(下), 사방(四方)이 하나로 합해진 것이다 음양이 화합하고 상, 하, 사방이 하나가 되는 것은 진실로 촌부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어찌 이제 현자(賢者)가 나와서 위로는 능히 임금의 덕(德)을 보필하고, 아래로는 인심(人心)을 따르게 하여 사방을 하나 되게 하는 것을 알 수 있지 않겠는가? 능히 임금의 덕을 보필하면 화합이 위로부터 나오게 되고, 인심을 따르게 하면 화합이 아래로부터 나오게 된다. 상, 하가 화합하면 음양(陰陽)이 합쳐지게 되고, 음양이 화합하면 나뉘어졌던 것이 합쳐지게 되고, 사방이 또한 좇아서 화합하게 되는 것이다.³⁹⁾

위의 글은 「포전합환과설(圃田合歡瓜說)」에서 인용한 것이다. 그의 나이 48세, 원형리(元亨里)에 은거하던 때의 글이다. 채마밭에 심었던 오이 중에 둘이 붙어서 하나가 된 것을 보고 인간사를 되 돌아보며 생각을 정리하고 있다. 오이 둘이 하나가 된 것처럼 음양(陰陽)이 화합하고, 임금과 신하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로 화합하여 임금의 덕을 드러내고 태평성대를 이루기를 바라는 마음이 나타나 있다. 오이를 통해 시작된 자기성찰을 거쳐 신광한은 조정(朝廷)이 더 이상 훈구파나 사림과 등으로 나뉘어서 대립하지 않고, 화합하여 하나가 되어야 태평성대의 온전한 이상이 실현되어질 수 있다는 깨달음에 도달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은거의 시기를 보내며 신광한은 세상과 사회에 대한 자기성찰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고, 그 결과 자신의 주장과 정의로 사회를 바꾸기 위해 앞장섰던 과거를 반성하고 삶에 대한 새로운

39) 今者兩瓜合而爲一 此兩一而六合之象歟 兩一者 陰陽和而爲一也 六合者 上下四方同而合也 陰陽和而上下四方同者 固非野人之事也 安知今之時有賢者出 能上輔君德 下順人心 以同四方者乎 能輔君德則和自上生 能順人心則和自下生 上下和則陰陽和 陰陽和則分者可合 而四方亦從而和(『企齋集』文集 卷一).

이치를 터득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에 이르러서야 우리는 신광한이 정계에 복귀한 후 종종 임금에게 자신의 과거가 잘못되었다고 고백한 배경이나 직임(職任) 이외의 일에는 망령되어 나서지 않았던 이유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연산조 이래 계속되어 온 사회는 비록 개별적 상황으로 다를지라도 모두 자기의 주장과 정의만을 내세워 사회를 개조하려는 사람들의 욕망이 부딪히면서 나타난 것이고, 결과는 늘 엄청난 사회 불안과 정국의 불안정으로 이어져 국가의 에너지가 불필요하게 소진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그렇다면 자신의 정의만을 내세워 사회를 개조하려는 것은 의도가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문제를 해결하는 바른 방법이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이런 점에서 신광한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다른 방법을 모색하게 되었고, 관심의 방향을 오히려 자신의 내부로 돌리고 대립과 투쟁이 아니라 이해하고 포용하는 데에서 올바른 사회 개조의 에너지가 결집되어질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할 수 있다. 신광한은 네 번에 걸친 사회를 온 몸으로 체험하며 사회에 대한 자신의 문제의식을 변화시켜갔던 것이다.

이런 점에서 신광한의 의식은 항상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 관심의 방향을 자신의 내부로 돌려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을 상실한 듯이 보이고, 대립과 투쟁으로 사회적 쟁점을 드러내기보다 이해와 포용으로 문제를 덮어두려는 듯이 보이더라도 행위의 목표는 사회의 재변과 시정(時政)의 폐단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모아져 있기 때문이다. 그의 시야는 언제나 사회의 저 편을 향해 열려있었던 것이다. 하생의 출세담이 여인과의 애정담으로 바뀌며 작품의 첫 부분에 나타났던 사회의식이 소멸된 듯이 보일지라도, 궁극적으로 「하생기우전」이 사회적 문제의식을 다루고 있는 작품으로 평가받을 수밖에 없는 것도 신광한의 의식세계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다.

그런데 신광한은 조광조와 행보를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묘

사화(己卯士禍)에서 희생되지 않고 살아남은 사림(士林)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이것은 사화(士禍)로 타격을 받아 피폐해진 사림파(士林派)를 재건해야 하는 역사적 사명이 그에게 부여되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신광한이 권간(權奸)에게 배척을 받아 여러 해 동안 시골에 묻혀 사니 사림(士林)에서 애석하게 여겼다는⁴⁰⁾ 기묘년 이후로는 한산(閑散)으로 시골에 사니 사림(士林)이 중히 여겼다는 것⁴¹⁾ 등은 모두 신광한이 사림파(士林派)의 재건을 감당할 인물로 평가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사림(士林)이나 사림파(士林派)는 역사적인 개념을 지니고 있는 용어이다. 사림(士林)은 주자학적 실천윤리를 강조하는 신진사류(新進士類)를 두루 지칭하는 용어이며, 사림파(士林派)는 이 가운데 네 번의 사화를 거치며 피해를 입었던 신진사류들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어느 것이든 이 용어들은 집권 훈구파에 대한 대립적 개념으로 사용되었다.⁴²⁾ 그러므로 사림파의 재건은 훈구파와의 대립과 투쟁의 관계를 통해 성취될 수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정계에 복귀한 신광한은 이미 사림파가 지니고 있던 대립적 사고의 한계를 넘어서 자신의 이념을 갖고 자기의 길을 가고 있었다. 신광한에게 쏟아졌던 여러 가지 부정적 평가들은⁴³⁾ 신광한에게 일어났던 인식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사림파의 재건이라는 과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한 반발이었던 것이다.

상대방을 배척하고 제거함으로써 사회적 정의를 실현시키려 했던 것은 당시 훈구파와 사림파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었다. 그러나 배척하고 제거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사

40) 『명종실록』권14, 8년 신사조(辛巳條).

41) 『명종실록』권16, 9년 기축조(己丑條).

42) 이수건, 『영남사림파의 형성』(영남대출판부, 18~22쪽, 1979).

43) 각주 31), 32), 33)의 것들.

회풍조에 희생되어 긴 은거의 시간을 보내며 신광한은 대립적 사고로는 사회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고, 이로 말미암아 이해하고 포용하는 것으로 시정(時政)의 폐단을 고치려 했던 것이다. 신광한이 정계에 복귀하여 대사간(大司諫)의 직책을 맡았을 때, 김안로(金安老) 일당을 추죄(追罪)하려는 의론(議論)을 힘써 진정시키려 하였던 것도⁴⁴⁾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배척하고 제거하는 것은 문제를 공개적으로 노출시켜 놓고 직접적인 공격을 통해 해결하려 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러나 이해하고 포용하는 것은 문제를 표면화시켜 직접 다룸으로써 생기는 대립과 충돌을 피하기 위해 우회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다. 그러므로 이해하고 포용하려 했다는 것은 신광한이 사회적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직접적인 방식보다는 간접적이며 우회적인 방식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직접적인 방식은 대립과 투쟁을 야기하며 사회적 불안을 조성한다는 것을 그는 경험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다. 「하생기우전」이 사회적 문제의식을 다루고 있음에도 이것을 직접 드러내지 않고 여인과의 애정담을 통해 우의적으로 드러내고 있던 까닭도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IV. 문학사적 의미

작품에 나타나는 문제해결방식을 작가인 신광한의 의식과 결부시켜 보았을 때, 「하생기우전」은 신광한이 갖고 있던 삶의 자세와 의식구조를 그대로 드러내면서 이해와 포용으로써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명제를 소설화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에 대한 불만을 사회를 이해하는 것으로 해소해야 한다는 역

44) 조사수, 문간공행장(『기재집』권14).

설적인 해결방식을 제시하고 있고, 작품의 첫 부분에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의식을 드러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여인과의 애정답에 담아 우의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은 소설의 일반적 문법에 비추어보았을 때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현상이다. 소설이 인물 사이의 갈등을 본질적 속성으로 다루는 갈래임에도 불구하고, 「하생기우전」에 나타나 있는 역설적 해결방식이나 우의적인 방식 등은 사회적 문제를 다루고 있음에도 이것을 직접 드러내지 않고, 갈등을 기본구도로 설정하여 출발하고 있음에도 갈등을 회피하도록 구조화시켜가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 문제는 그 자체에 이미 갈등을 내포하고 있고 갈등은 상대에 맞서 자기의 주장을 관철시키려는 대립적 상황에서 나타나게 된다. 이에 비해 이해와 포용은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상대의 처지와 주장을 받아들이는 것이므로 대립을 넘어선 화해를 지향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해와 포용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립을 넘어서 화해에 이르기 위한 고통스럽고 힘든 인간적 노력이 전제되어야 하고, 대척적인 두 지점 사이의 거리를 줄이기 위한 길고도 어려운 매개과정을 거치면서 사회적 조건과 존재의 의미에 대해 깊이 있는 성찰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하생기우전」에는 갈등과 포용, 대립과 화해 사이에 놓여 있는 거리를 줄이기 위한 노력의 과정이 생략되어 있다. 하생은 낙타교(駱駝橋) 옆에 있는 점쟁이에게 자신의 수요화복(壽夭禍福)을 알아본 뒤 불현듯 돈오(頓悟)의 상태에서 삶의 이치를 깨닫게 되고, 삶 전체를 포괄하여 바라볼 수 있는 객관적 거리와 여유를 확보하게 된다. 그래서 「하생기우전」은 삶의 이치를 깨달은 인물들에 의해 너그럽게 상대가 이해되고 포용되는 행복한 과정으로 채워지고 있을 뿐 사회적 조건에 맞서 존재의 의미를 추구하려는 인간들의 노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사실들은 「하생기우전」에 대한 문학사적 평가를 인색하게

한다. 앞 시대의 소설인 「금오신화」에서 이룩했던 문학적 성과를 오히려 후퇴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소설이 깊어져야 하는 사회적 역할 또한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다는 것이 이유이다. 그러나 문학사적 관점에서 볼 때, 문학작품이 앞 시대의 문학적 성과를 발전적으로 이어가지 못하고, 그 시대가 요구하는 정신적, 사회적 질량을 온전하게 감당하지 못했다는 것으로 해서 비난받아서는 안 된다. 보다 중요한 것은 문학의 온전한 사명과 같은 기준으로 작품을 재단하는 평가의 행위가 아니라, 문학작품이 그 곳에서 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서 있었으며 어떤 역할을 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찾아내는 일이다. 그리고 해답은 16세기의 사회적, 문학적 배경 속에 신광한과 「하생기우전」을 비춰봄으로써 찾아지게 될 것이다.

하생이 사회와 심각한 갈등관계에 놓여 있었을 때, 「하생기우전」은 사회를 향해 열려 있던 관심의 방향을 자신의 내부로 돌려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하생이 세상과 격리되어진 내밀한 공간에서 자기성찰을 통해 삶의 전환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그 결과적 산물이다. 세상에서 소외되고 격리된 인물이 자기만의 밀폐된 공간에서 삶의 새로운 의미를 찾는 것은 전기소설의⁴⁵⁾ 중요한 특성이다. 「하생기우전」이 전기소설의 양식적 특성을 물려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신광한은 원형리(元亨里)에서의 은거 체험을 통해서 세상을 쳐다보는 시야를 바꾸고 자신의 생각도 바꿀 수 있었다. 세상과 온전히 격리된 자신만의 공간 속에서 세상을 향해 열려 있던 관심의 방향을 내부로 돌리면서 삶에 대해 새로운 인식의 눈을 뜰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런 점에서 전기소설은 세상과의 거리두기가 필요

45) 전기소설은 전기(傳奇)적 속성을 지니고 있는 소설을 지칭하며, 『수이전』 계열의 작품까지 포괄하는 용어로 사용하지는 않는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안창수, 『태평통계』 소제 최치원의 소설성 검토(『영남어문학』32집, 영남어문학회, 1997. 12)에서 검토한 바 있다.

하다는 것을 체험한 신광한이 자신의 체험에 입각한 깨달음을 작품으로 보여줄 수 있는 적절한 양식이었다.

신광한의 생각은 당시의 사림(士林)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했던 대사회적(對社會的) 태도와 연결되어 있었다. 16세기는 훈구파와 사림파가 충돌하며 지배이념에 대한 반발이 어느 정도 허용되고 있던 시기였다. 「하생기우전」이 첫 부분에서 하생에 대한 사회의 부당한 횡포를 다루고 있는 것은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후 네 차례, 시간적으로는 50여 년에 걸쳐 일어났던 훈구파와 사림파의 대결은 사림들의 피로 역사가 물들어지는 과정으로 나타나게 된다.⁴⁶⁾ 이 과정에서 개혁의지가 뚜렷한 인물들은 모두 제거되었고, 사림파는 자체 반성을 통해 학문을 하는 큰 대강을 위기지학(爲己之學)에 두어야 하는데 선비들이 인물을 논하고 정치를 평하는 것을 일삼음으로써 화를 자초하였다고 하며, 앞으로는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심학(心學)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하기에 이르렀다.⁴⁷⁾ 사림파가 훈구파와의 직접적인 대결을 피하고 서원의 건립에 주력하며 교육을 통한 세력의 확보에 힘을 기울이게 되었던 것은 이러한 변화의 결과였다.

신광한에게 나타났던 사고의 변화가 당시의 사림들에게 나타나고 있었던 반성적 경향과 접맥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신광한은 당시의 사림들이 취하고 있었던 반성적 경향과 자신의 사고를 합치시키며 전기소설의 양식을 받아들여 사회를 향해 열려있는 관심

46) 16세기 훈구파와 사림파의 대결 양상에 대해서는 아래의 글을 참고했다.

이태진, 『한국사회사연구』(지식산업사, 1986).

이병휴, 『조선전기 사림파의 현실인식과 대응』(일조각, 1999).

47) 『중종실록』권101, 39년 을축조(乙丑條)를 보면 대사헌(大司憲) 민제인, 사간(司諫) 허백기 등이 선비들의 자세를 논하며 기묘년(己卯年)의 사화(士禍)가 선비들의 잘못된 자세에서 나왔다고 하며 이 같은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이런 주장이 공론화되고 있다는 것은 사회를 거치며 사림들의 생각이 변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의 방향을 자신의 내부로 돌려야 한다는 메시지를 세상에 전달하려 했다고 할 수 있다.

전기소설의 양식적 특성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와 맞설 수 있는 대중적 역량이 확보되지 못했던 시기에 사회와 맞설 수밖에 없었던 고독한 예외자가 사회를 향해 던지는 저항의 몸짓을 분신으로 하여 나타난 것이다. 전기소설이 인간과 사회에 대해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존재의 의미와 깊이를 가늠하기 위한 행위로 채워지게 되는 이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소설이 우의(寓意)를 중요한 소설적 장치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개인이 사회적 문제를 직접 다룰 수 있을 만한 역사적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전기소설은 신광한의 고뇌를 보여주기에도 적합한 양식이었다. 신광한은 원형리에서의 은거생활을 통해 조화와 화합을 바탕으로 하는 사회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것은 대립과 투쟁으로 의사를 관철시키고 사회를 변혁하고자 하는 행위에 대한 회의와 반동에서 출발한 것이었다. 그러나 훈구파와의 대결을 통해 존재의 의미를 실현시켜야 했던 사림파의 입장에서 볼 때 이와 같은 생각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었고, 이 때문에 신광한은 사림의 동료들로부터 배척당하게 되었다. 신광한에게 부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는 실록(實錄)의 기록들은 당시 신광한이 처해 있던 상황이 어떠했는가를 잘 보여주는 것이다.

千祿時既往	벼슬살던 때는 이미 지나가고
學稼頭亦白	농사일을 배우며 머리가 희어졌다
此物無可用	이 물건은 쓸 일이 없으니
安所識苦樂	어찌 괴로움과 즐거움을 알겠는가
怡然一室內	기쁜 마음으로 방에 들어가
往往讀古籍	종종 옛 서적을 읽으니
古籍自有味	옛 서적에 스스로 맛이 있어

味至輒忘食	문득 먹는 것을 잊게 한다
清風爲我吹	서늘한 바람이 나를 위해 불어오니
百年欣有得	백 년의 즐거움을 얻겠구나
永懷知音士	오래도록 나를 알아주는 선비를 생각하다가
悵望世已隔	망연히 세상과 나 사이가 막혀있음을 깨닫는다
荊婦善繼志	아내가 내 뜻을 잘 받아서
麥酒報新熟	보리술이 새로 익었다고 알려주어
頽然醉臥地	흐트러지게 마시고 땅에 누우니
萬古一窓北	옛 일이 모두 북쪽 창가에 어리네.48)

「夏日書事」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 위의 시는 원형리 은거기에 지은 것으로 보인다. 이 작품의 시상(詩想)은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뉘어지며 급격한 변화의 양상을 보여준다. 전반부가 농사일과 독서의 재미에 빠져 일체의 근심과 걱정을 잊은 물아일체의 희열을 보여주고 있는데, 후반부는 사람과 나, 세상과 나 사이를 갈라놓는 격절(隔絶)로 인하여 방황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심사를 드러내고 있다. 그의 시에는 이 외에도 세상이나 사람으로부터의 격절(隔絶)과 이로 인한 고독과 비애를 드러내는 작품이 여럿 발견된다.

세상과 격절되는 것은 공간적인 것이기도 하고, 심리적인 것이기도 하다. 심리적으로 단절되지 않고 공간적으로만 격리되었을 때의 격절은 그리움의 정서와 접맥되게 된다. 그러나 술에 취해 흐트러진 자세로 땅에 누워 상념에 잠기는 것은 세상과 나, 사람과 나 사이의 심리적 거리를 줄일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거리는 사람들에게 용납되지 못하는 데에서 생기는 소외의 거리감이기도 하다. 신광한의 시에서 격리가 그리움의 정서와 연결되지 않고 비애나 고독의 정서로 표출되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신광한이 느껴야 했던 소외와 고독은 자신의 생각이 동료들로부터 이해되지 못한 때문이고, 그럼에

48) 『기재집』 권3.

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의 정당성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⁴⁹⁾ 사회에 용납되지 못했던 고독한 예외자의 고뇌가 전기소설의 양식에 그대로 녹아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앞 시대의 소설, 예컨대 『금오신화』에서 전기소설은 사회에 대한 저항의 몸짓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신광한에게 있어서서는 대립과 투쟁 대신 이해와 포용으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었다.

세상에 대한 저항의 몸짓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을 때, 전기소설은 잘못된 세상의 질서에 맞서서 존재의 의미를 모색하고 기능해 보기 위한 행위로 채워질 수 있었다. 그러나 이해와 포용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을 전달하려 하면서 「하생기우전」은 이념이 실현되는 장(場)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금오신화』와 「하생기우전」에는 모두 남녀의 애정담이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그러나 『금오신화』에서의 애정담이 장애에 맞서 사랑을 이루려 함으로써 나타나는 사랑의 절실함을 통해 존재의 의미에 도달하려는 몸짓을 보여주는 데 비해 「하생기우전」에는 인간관계의 바른 도리나 양상을 보여주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인물들이 이해와 포용으로 상대방과 일체를 이루어 가는 행복한 과정으로 작품이 채워지고 종결되어 있는 것은 인간관계의 바른 도리가 어떠한가를 보여주기 위한 장치라고 할 수 있다. 바람직한 인간관계에 의해 이루어지는 이상적인 삶의 한 전범을 만들어 보여주며, 신광한은 소설을 이념실현의 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49) 신광한이 사립파적 사고의 한계를 넘어서 자신의 이념을 추구하고 있었다는 관점에서 볼 때, 신광한을 사립파로서의 이념적 무장이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훈구계 가문의 일원으로서 당시의 정치적 파란을 정면으로 맞이할 실천적 용기도 부족했던 인물로 파악하고, 훈구계 사장문인이나 사립파 그 어느 쪽으로도 귀속시킬 수 없는 이념부재의 중간자적 존재로 보는 것(윤채근, 『소설적 주체, 그 탄생과 저변』, 월인, 254-262쪽, 1999)은 적절한 평가라 하기 어렵다.

그리고 삶의 이치를 깨달은 자에 의해 인물들이 상대방과 일체를 이루어 가는 행복한 과정으로 채워짐으로써, 「하생기우전」에는 일체의 갈등이 거세되어 있다. 갈등은 사람들이 인간과 사회적 조건에 대해 눈뜨게 한다. 그리고 사회적 조건에 눈뜨기는 과정을 통해서 작품은 삶의 현실과 밀착되는 것이다. 더욱이 하생은 자신의 불합리한 사회적 조건에 대해 답답한 마음을 품고 있던 인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생기우전」에는 하생을 세상과 격리된 공간으로 이동시킨 다음 이해하고 포용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세상과 격리된 공간, 즉 삶의 현실과는 절연된 관념의 세계에서 당위적 삶이 실현되어지는 이상적 세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이다.

「하생기우전」에 나타나는 이러한 특징은 16세기의 문학적 현상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사화(士禍)를 거치며 나타난 사림파의 반성적 경향은 철학과 문학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기에 이르렀다. 무엇보다 현실을 개조하기 위한 실천철학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 오던 성리학이 16세기 중엽을 지나며 이기(理氣)를 논변하는 관념철학으로 변모하였고, 문학도 자연과 벗하며 사는 사람들의 한정(閑情)을 읊은 문학, 이른바 강호가도(江湖歌道)라고 일컬어지는 독특한 문학적 경향을 드러내게 되었다.

16세기 강호가도(江湖歌道)의 경향을 주도하고 있던 인물들은 사림(士林)들이었다. 이런 점에서 16세기에 나타난 철학과 문학의 변모는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맞물려 있었다. 다시 말해서 관념철학으로 바뀌며 성리학이 자기성찰에 몰두하고, 이러한 변화를 주도했던 사림들이 자연을 문학의 대상으로 다루면서 문학은 자연 속에 담겨진 도의(道義)를 기뻐하는가 하면 자연을 스승으로 삼아 심성(心性)을 길러 즐기는 것을 중심과제로 삼았다. 자연에서 성리학적 질서가 실현되어지는 것을 발견하는 기쁨을 드러내고, 이것을 통해 수신(修身)의 자세를 가다듬는 것을 문학의 사명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문학이 이 시기에 와서 성리학의 이념이 실현되어

지는 모습을 담아내는 장(場)으로서의 기능을 온전하게 담당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연 속에 실현되어지는 도의를 기뻐하게 될 때, 나(自我)와 자연(세계, 세상)은 하나가 되는 일체감을 유지하게 되며, 문학은 물아일체(物我一體), 천인합일(天人合一)의 경지에서 나타나는 화합의 기쁨으로 충일되어 진다. 일체의 갈등과 그로 인한 정서의 일탈이 나타날 수 없었다. 그러나 사림과 문학에서 다루어지는 자연은 인간들의 세상과 완전히 격리되어진 공간으로서 이곳에는 현실적인 삶의 문제가 끼어들 여지가 없었다. 이런 점에서 물아일체의 화합은 관념의 세계에서 실현되어진 이상적 삶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었다.⁵⁰⁾

「하생기우전」의 작품세계가 당시의 사람들이 추구했던 문학세계와 동일한 지평 위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념이 실현되어지는 모습을 담아내는 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 것이 16세기 사림과 문학과 「하생기우전」의 두드러진 특징이었는데, 이것은 사회적 조건이 악화되었을 때 문학이 이념을 강화시킴으로써 이에 대항하려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물론 문학에서 이념이 강화된 것은 관도(貫道)의 문학관을 내세웠던 개국 이래의 일관된 흐름이었다. 그러나 16세기 사림과 문학과 「하생기우전」은 이념이 지향하는 바의 이상적인 삶의 모습을 작품으로 실현하고 있다는 특징을 지닌다. 이념이 강화되었다는 것은 문학에서의 이러한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 때 문학과 이념은 하나로 합일되며 이념이 문학을 이끌어 가는 관계가 형성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상적인 삶이 실현된 세계는 현실과 격리된 공간에서였다. 이상적인 삶의 실현이 현실세계에서는 불가능했던 탓이고, 그럼

50) 16세기 강호가도와 사림과 문학에 대해서는 아래의 글들을 참고했다.

최진원, 『국문학과 자연』(성균관대출판부, 1977)

임형택, 16세기 사림과의 문학의식(『한국문학사의 시각』, 창작과 비평사, 1984)

이민홍, 『사림과문학의 연구』(형설출판사, 1985)

에도 불구하고 이상의 실현을 포기할 수 없었던 때문이다. 여기에서 「하생기우전」은 삶의 현실적 조건을 넘어서 관념의 세계에서 원망(願望)을 충족시키는 것을 소설의 한 기능으로 드러내게 되었다.

원망 충족이 문학의 목적이 되어 이상적이며 당위적 삶이 작품에서 실현되도록 하는 것은 17세기 후반 이후의 소설사에서 폭넓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 사회의 질서가 급격하게 무너지며 문학이 이념을 강화함으로써 이에 대처하려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때문에 소설은 사회적 위기상황에서 존재의 의미를 탐색하려 하기보다 사회적 분위기를 바꾸고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기 위한 것으로 사용되었던 것이고, 「하생기우전」은 이러한 변화가 16세기의 소설에서부터 나타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V. 맺음말

「하생기우전」에 나타난 문제해결방식을 찾아보고 이것을 작가의 의식과 연결시켜 살펴본 다음 작품의 문학사적 의의까지 찾아보려 했다. 「하생기우전」에는 애정담과 출세담이 공존하고 있고, 이것이 출세담 - 애정담 - 출세담의 순서로 나타나며 출세담이 외곽 이야기가 되어 애정담을 감싸는 액자형식을 취하고 있었다. 「하생기우전」이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그 문제의식을 해결하는 과정으로 짜여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찾아본 결과, 「하생기우전」은 사회에 대해 불만이 있을 때 오히려 관심의 방향을 자신의 내부로 돌려 자기성찰에 힘써야 하고, 인간관계에서도 대립과 갈등보다 이해하고 포용하려 해야 하며, 사회적인 문제를 다룰 때에도 직접적인 방법보다는 간접적이며 우회적인 방법을 사용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사회적인 문제의식을 잃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려

는 노력을 끝까지 경주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다.

문제해결방식을 신광한의 의식과 결부시켜 보았을 때, 「하생기우전」은 신광한이 기묘사회에 연루되어 긴 은거의 시기를 거치며 형성되었던 삶의 자세와 의식구조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으며, 이해와 포용으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명제를 소설로 실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문학사적으로도 「하생기우전」은 16세기 사림파에 의해 주도되고 있던 문학적 현상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문학이 이념이 실현되어지는 장(場)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 것인데, 그 결과 「하생기우전」은 이념이 지향하는 바의 이상적인 삶의 모습을 작품으로 실현하고 있으며, 현실적인 삶의 조건을 넘어서 관념의 세계에서 원망(願望)을 충족시키는 기능을 드러내고 있었다.

주제어(Key words) : 문제해결방식(a method to settle a problem),
이해(understanding), 포용(tolerance), 대립(opposition),
투쟁(struggle), 작가의식(consciousness of an author)

참고문헌

1. 자료

『중종실록』

『명종실록』

신광한, 『기재집』(민족문화추진회 편, 『한국문집총간』22)

2. 논저

- 권도경, 16세기 『기재기이』의 전기소설사적 의의 연구(『한국고전연구』 6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00. 12)
- 김종철, 서사문학사에서 본 초기소설의 성립 문제(『고소설연구논총』, 다곡 이수봉 선생 화갑기념논총, 1988)
- 박일용, 명혼소설의 낭만적 형식과 그 소설사적 의미(『조선시대의 애정소설』, 집문당, 1993.8)
- 박태상, 하생기우전의 미적 가치와 성격(『동방학지』89-90합병호, 연세대 국학연구원, 1995)
- 소재영, 하생기우전(『국문학논고』, 숭실대학교출판부, 1989.9)
- _____, 『기재기이연구』(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1990. 3)
- 안창수, 『태평통제』 소재 최치원의 소설성 검토(『영남어문학』32집, 영남어문학회, 1997. 12)
- 유기옥, 하생기우전의 구조적 특성과 의미(『국어국문학』101호, 국어국문학회, 1989.5)
- 윤채근, 『소설적 주체, 그 탄생과 저변』, 월인, 1999)
- 이민홍, 『사립파문학의 연구』(형설출판사, 1985)
- 이병휴, 『조선전기 사립파의 현실인식과 대응』(일조각, 1999).
- 이수건, 『영남사립파의 형성』(영남대출판부, 1979)
- 이월영, 「만복사저포기」와 「하생기우전」의 비교연구(『국어국문학』120호, 국어국문학회, 1997. 12)
- 이태진, 『한국사회사연구』(지식산업사, 1986)
- 임형택, 16세기 사립파의 문학의식(『한국문학사의 시각』, 창작과 비평사, 1984)
- 정운채, 「하생기우전」의 구조적 특성과 「서동요」의 흔적들(『한국시가연구』 2권, 한국시가학회, 1997)
- 최재우, 「하생기우전」의 결핍-충족 구조와 그 의미(『민족문학사연구』 15호, 민족문학사연구소, 1999.12)
- _____, 『기재기이』의 조화지향 인물관계의 형상(『동방고전문학연구』 2집, 동방고전문학회, 2000.8)
- 최진원, 『국문학과 자연』(성균관대출판부, 1977)

The Method to Settle a Problem And the Consciousness of an
Author in 「HASAENGKIUGEON(何生奇遇傳)」

Ahn, Chang-Soo

This paper was written to search for the method to settle a problem and the consciousness of an author in the 「HASAENGKIUGEON(何生奇遇傳)」, and to present the meaning on the history of literature.

The 「HASAENGKIUGEON(何生奇遇傳)」 shows that we have to make an effort to reflect on ourselves and to understand and to tolerate others when we are full of complaint about society, and to use the indirect method when we deal with a social problem .

The method to settle a problem is connected with the consciousness of an author. Shin Kwang Han, the author of the 「HASAENGKIUGEON(何生奇遇傳)」, had thought as before, since he was sent into exile being related to the KIMYOSAHWA(己卯士禍). The 「HASAENGKIUGEON(何生奇遇傳)」 also was closely related with the literary appearance which was led by SARIMPA(士林派) in 16C.

안창수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교수
주소: 부산시 금정구 장전동 산 30번지
전화번호: 051)510-2613(011-885-1272)
전자우편: csahn@pusan.ac.kr

이 논문은	2006년	10월	30일	투고하여
	2006년	11월	30일까지	심사완료하여
	2006년	12월	30일	간행함